

지표와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변동성 확대 파월, 경기 회복 불확실성 확대 Vs. 추가적인 부양책 지속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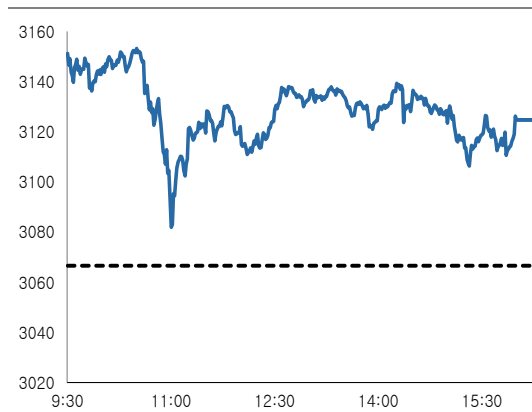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장중 파월 의장 발언으로 급등락

미 증시는 양호한 소매판매 결과에 힘입어 급등 출발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경기 회복 시기와 회사채 매입 불확실성을 언급하자 보험권까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여전히 부양 정책이 지속됨을 주장한 이후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특히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언급, 백신 후보물질 축소(14개→7개)에 따른 코로나 백신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도 긍정적(다우 +2.04%, 나스닥 +1.75%, S&P500 +1.90%, 러셀 2000 +2.30%)

미국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7% 급증해 예상(+7.5%)을 크게 상회. 경제 재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격적인 소비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 특히 의류가 전월 대비 188%나 급증하고, 가구(+89.7%), 전자제품(+50.5%)등이 이를 주도. 그렇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6.1% 감소해 경제 정상화를 언급하기에는 시기 상조. 실제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증가에 그쳐 예상(+2.9%)을 하회했으며 설비 가동률도 시장 예상(66.7%)을 하회한 64.8%에 그쳐 여전히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회복 시점과 그 강도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라고 경고해 시장의 기대를 약화. 더불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 제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혀 결정이 안됐다” 라고 주장. 한편, 전일 연준이 발표한 개별 회사채 매입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교란 의도 없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매입을 조정 할 것” 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이러한 파월 의장의 초기 발언으로 미 증시는 급격히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음. 물론 여전히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정책을 이어갈 것” 이라고 주장해 지수 상승폭을 재차 확대. 더불어 미 정부가 백신 후보물질 축소하고, 인프라 투자를 언급한 점도 긍정적. 그렇지만,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중국의 코로나 대응 상황 조정 등으로 장 마감 앞두고 달러, 엔화의 강세, 지수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38.05	+5.28	홍콩항셱	24,344.09	+2.39
KOSDAQ		735.38	+6.09	영국	6,242.79	+2.94
DOW		26,289.98	+2.04	독일	12,315.66	+3.39
NASDAQ		9,895.87	+1.75	프랑스	4,952.46	+2.84
S&P 500		3,124.74	+1.90	스페인	7,495.30	+3.25
상하이종합		2,931.75	+1.44	그리스	676.91	+4.46
일본		22,582.21	+4.88	이탈리아	19,625.63	+3.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 반도체, 제약업종 강세

램 리서치(+5.34%)와 퀄컴(+3.62%)에 대해 모건스탠리가 5G로 전환함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2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하겠지만 빠르게 반등을 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목표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AMAT(+2.61%)는 물론 마이크론(+3.61%)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애플(+2.65%)이 10곳의 뉴욕 매장을 재 오픈한다는 점까지 유입되며 스카이웍(+0.90%), 쿼보(+2.61%), ADI(+3.54%), 브로드컴(+2.18%) 등도 동반 상승했다. 다만, NVIDIA(-1.15%)와 인텔(+0.50%)은 모건스탠리가 실적 대비 과한 상승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했으며 AMD(-0.40%)도 동반 하락했다.

일라이릴리(+15.68%)는 화이자(+0.12%)가 실패했던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 JNJ(+2.27%), 머크(+3.99%) 등은 미국이 백신 후보 물질을 14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소매판매에서 의류 판매가 전월 대비 188% 급증한 데 힘입어 노드스트롬(+12.91%), TJX(+5.61%), 갭(+8.48%), L브랜드(+3.99%) 등이 급등했으며 트럼프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언급으로 캐터필라(+5.26%), 디어(+1.82%) 등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7%	대형 가치주 ETF(IVE)	+1.86%
에너지섹터 ETF(OIH)	+1.79%	중형 가치주 ETF(IWS)	+1.74%
소매업체 ETF(XRT)	+2.94%	소형 가치주 ETF(IWN)	+2.63%
금융섹터 ETF(XLF)	+1.57%	대형 성장주 ETF(VUG)	+1.78%
기술섹터 ETF(XLK)	+2.13%	중형 성장주 ETF(IWP)	+1.7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0%	소형 성장주 ETF(IWO)	+2.22%
인터넷업체 ETF(FDN)	+1.99%	배당주 ETF(DVY)	+1.85%
리츠업체 ETF(XLRE)	+1.6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5%
주택건설업체 ETF(XHB)	+2.7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6%
바이오섹터 ETF(IBB)	+1.40%	미국 국채 ETF(IEF)	-0.21%
헬스케어 ETF(XLV)	+2.49%	하이일드 ETF(JNK)	+0.73%
곡물 ETF(DBA)	+0.11%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1.56%	Long/short ETF(BTAL)	-0.6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7.99	+2.82%	-9.00%	+5.16%
소재	355.57	+2.10%	-4.15%	+6.22%
산업재	596.22	+1.94%	-4.82%	+11.46%
경기소비재	1,045.88	+2.00%	-1.83%	+7.55%
필수소비재	607.87	+1.59%	-1.56%	+1.94%
헬스케어	1,164.27	+2.44%	-2.61%	-1.21%
금융	405.29	+1.43%	-6.38%	+10.39%
IT	1,798.25	+2.16%	+0.02%	+6.87%
커뮤니케이션	184.03	+1.22%	-1.91%	+4.65%
유틸리티	299.22	+0.46%	-3.66%	+3.60%
부동산	225.93	+1.75%	-2.50%	+12.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출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2.31%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64%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1.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 재개 이후 소비가 공격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기존의 14 개에서 7 개로 줄이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미 증시는 상승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업생산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으며, 파월 연준의장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장해 기대와 현실의 격차는 상당함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루 변동폭이 3% 가가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을 준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더불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 개발의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재 확산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북경의 코로나 대응 수준을 상향 조정해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 전 검사를 포함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변화로 미 증시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국채금리도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소매판매 예상 큰 폭으로 상회

5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7% 급증해 예상(+7.5%)을 상회했다. 자동차와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도 전월 대비 12.4% 증가해 예상(+4.0%)을 상회했다.

5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상승해 예상(+2.9%)을 하회했다. 제조업생산은 전월 대비 3.8% 증가해 예상(+3.6%)을 상회했다. 한편, 공장가동률은 64.8%로 예상(66.7%)을 하회했다.

6 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37)이나 예상(44)을 상회한 58 로 발표됐다. 여전히 심리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4 월 기업 재고는 전월대비 1.3% 감소해 예상(mom -0.5%)을 하회했다.

애틀랜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2 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45.4%로 발표했다. 소매판매 급증을 이유로 지난 9 일 발표한 -48.5% 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엔, 금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

국제유가는 소매판매가 급증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세계 에너지 기구가 올해 하루 평균 원유 수요감소가 810 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하루 평균 570 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중국의 원유수요가 4 월에 전년 수준을 회복했고 5 월에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 물론 미국 산업생산이 예상을 하회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해 장 중 한때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으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회사채 매입 강도를 완화 시키는 발언을 하자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특징이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및 중국의 코로나 대응 수준 상향 조정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개별 회사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거나 지연할 것이라고 주장해 상승폭은 제한 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상승 제한 요인이었다.

금은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소매판매 급증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8.38	+3.39	-1.44	Dollar Index	97.023	+0.33	+0.73
브렌트유	40.96	+3.12	-0.53	EUR/USD	1.1263	-0.53	-0.68
금	1,736.50	+0.54	+0.85	USD/JPY	107.33	0.00	-0.40
은	17.652	+1.45	-0.80	GBP/USD	1.2573	-0.25	-1.22
알루미늄	1,597.50	+1.30	-0.50	USD/CHF	0.9511	+0.20	+0.03
전기동	5,728.50	+0.37	-0.79	AUD/USD	0.6887	-0.46	-1.06
아연	1,995.50	+0.66	-1.09	USD/CAD	1.3548	-0.18	+0.98
옥수수	334.25	+0.15	+0.38	USD/BRL	5.2429	+1.68	+8.73
밀	501.25	-1.67	-1.86	USD/CNH	7.0832	+0.16	+0.09
대두	873.00	-0.34	-0.40	USD/KRW	1207.20	-0.72	+0.79
커피	95.60	-0.31	-4.11	USD/KRW NDF1M	1211.70	+0.29	+1.1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43	+2.15	-8.23	스페인	0.529	-2.80	-10.50
한국	1.408	-1.40	+2.60	포르투갈	0.525	-1.50	-6.50
일본	0.021	+1.20	+0.10	그리스	1.133	-6.30	-31.40
독일	-0.427	+1.90	-11.80	이탈리아	1.395	-6.10	-10.40